



Contents

- 1-1 연성대학교, 제3회 온앤오프페스타 참여
- 1-2 연성대학교, 제3회 안양일번가 '넘버원페스티벌' 참여
- 1-3 연성대학교 경기 RISE 사업 자·산·학·연·관·민 협력 거버넌스 출범식 성황리 개최
- 2-1 연성대학교 Y-ICC 협의회 자산학 공유·확산 포럼 성황리 개최
- 2-2 연성대학교, '폐우산 업사이클' 프로젝트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 2-3 [연성대학교-안양시] 안양청년축제·당리단길 문화행사 참여
- 3-1 연성대학교 치기공과, 일본 지케이학원그룹 대상 '글로벌 치기공 전공연수 프로그램' 성료
- 3-2 본교 평생교육원, '2025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소통교육' 성황리 개최
- 3-3 "잠자는 우산을 깨워주세요~" 연성대학교 학생혁신참여단 '폐우산 수거' 캠페인 개최
- 3-4 연성대 ESG 캠페인 플로깅 활동 실시
- 4 엄격한 전문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경찰경호보안과 이은영교수님을 소개합니다.

- 5 숫자가 말해주는 진짜 내 모습... 연성대 바이오그림 직접 해보니
- 6 연성대학교 베트남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 7 연성대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기르기 위한 팝업 스토어가 열리다.
- 8 배움을 향한 꾸준한 걸음 경험에 대한 여정을 이어나가다 시니어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 9 연성대학교의 시 맞춤 취업 프로그램, 시마스터 클래스

- 10 연성대학교, 2025 Gem-Festival 로 그동안 쌓아온 창의·실무 역량 한자리에서 확인
- 11 2025 연성대학교 양지대동제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드러내다.
- 12-1 연성대학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학생들의 하루를 응원해주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12-2 친구들과 함께한 올해의 연성대학교에서의 최고의 순간 사진 공모전

연성대학교, 제3회 온앤오프페스타 참여 — 지역 문화와 창업이 만나는 '지역상생형 융합 축제'에서 산학협력 성과 빛나다

6개 학과 40명 학생 참여... 산학협력 기반 전공 체험 및 창업 성과 공유

연성대학교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안양시에서 개최된 '제3회 온앤오프페스타'에 참여하여 체험부스와 창업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 상생형 산학협력의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양시와 지역 내 대학, 기업, 청년이 함께하는 문화·창업 융합 축제로, 웹툰 및 버추얼 캐릭터 전시, 청년 창업 부스, 전공 체험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성대학교는 '전시존'과 '창업존' 운영을 주도하였으며, 보건·복지·문화 콘텐츠 관련 7개 학과에서 총 4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시민들과의 소통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보건과, 반려동물산업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응급구조과, 작업치료과학생들은 각 전공 특성을 살린 실무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웹툰만화콘텐츠과에서는 네이버 웹툰 작가 초청 전시회와 안양시 상인회 캐리커처 전시 부스를 기획·운영하였으며, 지역 상권과 예술 콘텐츠의 접점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연성대학교는 '지역 상생'과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공공 가치 실현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적 교육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성대학교, 제3회 안양일번가 '넘버원페스티벌' 참여 — 청년문화와 지역상권에 활력 불어넣다

연성대학교는 2025년 RISE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문화축제 '제3회 안양일번가 넘버원페스티벌(Be your own No.1)'에 참여하여 청년문화 확산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이틀간 안양일번가 일원에서진행되었으며, 안양시가 주최하고 본교 8개 학과(동아리)에서 총 10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넘버원으로 떠나는 여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축제는 Z세대 청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소통 중심의 청년 축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연성대학교는 이번 행사에서 각 학과의 전공 역량을 살린 체험 및 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메뉴 개발, 브랜딩, 고객 응대 등 전 과정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실전 창업 경험을 쌓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성대학교 권민희 총장은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이번 축제 참여는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한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형 창업·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본교는 이번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방식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성대학교 경기 RISE 사업 자·산·학·연·관·민 협력 거버넌스 출범식 성황리 개최



연성대학교는 올해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지원 사업에 최초 선정되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E 사업단은 지난 9월 17일(수) 본교 인스퍼레이션홀에서 GX 자산학협력얼라이언스(GX-GAIA)협의체 및 지역공헌사업 추진단의 위원회 회의 및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권민희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진배 RISE 사업단장의 RISE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보고 ▲김홍희 RISE 사업부단장의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 운영 계획 ▲김영선 자산학협력혁신센터장의 지역문제 발굴·해결 플랫폼 운영 계획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권민희 총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자산학 협력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학의 교육혁신을 하나의 흐름으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연성대학교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발전과 도전으로 새로운 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연성대학교는 경기도 RISE 사업의 자·산·학·연·관·민 협력 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였으며, 향후 지역 중심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성대학교 Y-ICC 협의체 지산학 공유·확산 포럼 성황리 개최

연성대학교는 지난 9월 17일(수) 본교 인스퍼레이션홀에서 Y-ICC 협의체 지산학 공유·확산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권민희 총장을 비롯하여 안양시, 안양산업진흥원, 군포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메인비즈협회, 안양샘병원, 지역 산업체RISE 사업 관계자, 혁신지원사업단Y-ICC 협의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행사는 권민희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 김진배 산학부총장의 RISE 사업 주요 계획 및 실적 보고, ▲ 김영선 지산학협력혁신센터장의 지역문제 발굴·해결 플랫폼 운영 계획, ▲ 김홍희 Y-ICC 협의체의 지산학 협력 활동 계획(스마트 콘텐츠 ICC, 스마트 푸드 ICC 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권민희 총장은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RISE 사업과 연계된 흐름속에서, 연성대학교가 추구하는 혁신교육과 연구, 인재 양성, 지산학 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학 내부 성장의 핵심 동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연구·산학협력·지역공헌을 하나의 가치사슬(Value Chain)로 긴밀히 연결하는 협력적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연성대학교의 지역 기반 산학협력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Y-ICC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연성대학교, '폐우산 업사이클' 프로젝트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연성대학교는 10월 19일, ‘폐우산을 활용한 업사이클 원단 개발 및 반려동물·반려인 의류 제작’ 프로젝트로 융합리빙랩에 참여한 학생 10명과 지도교수, 참여기업이 함께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김서영, 유인서, 차운진, 영상콘텐츠제작전공 이준성, 최지혜, 최지원, 반려동물산업과 김윤주, 황혜진, 시각디자인과 안서영, 김예빈 학생 등 총 10명이 참여하였으며, 강경희 교수의 지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기업 (주)업클로스의 임선아 대표 또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지원으로 위드어스협동조합(주관), (주)업클로스(협력기업), 연성대학교(참여기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폐우산을 수거하고, 이를 재가공하여 업사이클 방수 원단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원단은 반려동물 우비와 반려인을 위한 방수 모자 등 실용적인 제품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자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였습니다.

연성대학교는 지산학 협력 기반의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 사회를 선도할 혁신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성대학교-안양시] 안양청년축제·댕리단길 문화행사 참여 –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동반성장의 장을 열다



연성대학교, 안양청년축제 및 댕리단길 행사서 청년문화 이끈다

연성대학교는 2025년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0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제6회 안양청년축제와 댕리단길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에 참여해 지역 청년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안양청년축제는 “안양, 보통이 아냐!”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이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연성대학교는 전공과 창의성을 살린 체험 부스를 마련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뷰티스타일리스트과학생들은 헤어 스타일링, 페이스페인팅, 핸드마사지 등 뷰티 체험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분위기를 돋웠고, 웹툰콘텐츠과는 캐리커처와 일러스트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패션산업디자인과는 업사이클링 패션 소품 전시 및 제작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중요성과 청년 문화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댕리단길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도 연성대학교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실현했습니다. 연성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축제 참여는 학생들에게 전공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역할을 실천한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청년의 창의성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현장 중심 역량 강화를 돕는 동시에, 대학과 사회와의 상생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성대학교는 앞으로도 ‘열린 대학, 함께 하는 대학’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성대학교 치기공과, 일본 지케이학원그룹 대상 ‘글로벌 치기공 전공연수 프로그램’ 성료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일본 지케이학원그룹 치기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치기공 전공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성대학교 치기공과가 주관·주최하였으며, 한국의 디지털 치기공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연성대학교 이해은 학과장, 이하빈 교수, 박연경 교수, 국제교류원 신아영 직원, 그리고 재학생 7명이 함께하였으며, 일본 지케이학원그룹에서는 치기공 교수

1명과 재학생 1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은 ▲디지털 치기공 직무실습 ▲한국 치기공 산업 이해 ▲국내 산학 현장 방문 ▲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덴탈보다, 예다움덴탈랩, (주)바텍엠시스, (주)하이덴탈, (주)오스템 등 국내 주요 치기공 산업체가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성대학교는 바이오헬스 ICC와 연계한 글로벌 전공 연수의 운영 및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재학생들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연성대학교 창조관에서 진행된 디지털 치기공 직무연수에서는 이해은 학과장이 '한국의 디지털 치과기공의 흐름'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박연경 교수(덴탈보다 대표)의 지도로 오피셰이드를 활용한 치아 색상 심화 학습 및 컬러링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디지털 심미보철 제작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전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연성대학교 치기공과는 자교 전공 교육의 우수성을 해외 교육기관에 소개하고, 글로벌 교육 콘텐츠의 확산을 통해 학과의 국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본교 평생교육원, ‘2025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소통교육’ 성황리 개최

본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11월 3일(월) 화성시 라비도리조트 그랜드볼룸 12홀에서 '2025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소통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 본교가 주관했으며,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소통교육은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설사의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지사 표창 30명, 경기도의회 의장상 3명 등 유공 해설사에 대한 시상과 우수 해설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엠유(MU) 조연심 대표의 '시 시대, 공존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브랜딩' 특강과 ▲서강대학교 이육연 교수의 '이만큼 다른 한국문화' 강연으로 이어지며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고 또한 전국대회 수상 해설사의 우수 해설 시연과 사·군·별 관광자원 홍보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미영 원장님은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경기도 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설사 교육 품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관광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자는 우산을 깨워주세요~!” 연성대학교 학생혁신참여단 '폐우산 수거' 캠페인 개최

연성대학교는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혁신참여단이 주관하는 '폐우산 수거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공모한 '2025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으로, 위드어스 협동조합, 업클로스, 그리고 본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은 사용하지 않는 폐우산을 수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입니다. 수거된 우산은 전문 공정을 거쳐 방수 원단으로 재탄생하며, 이 원단은 반려동물용 우비와 방석, 반려인을 위한 방수 모자 등 실용적인 제품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산 수거함은 학생복지센터 'CAFE Planet 37' 입구와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되었으며,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에코백, 텀블러 등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강경희 교수는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물품 수거를 넘어, 학생들이 자원 순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고장 난 우산 하나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성대 ESG 캠페인 플로깅 활동 실시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는 지난 10월 24일(금) 안양 삼덕공원 일대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플로깅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춘 환경보호 실천을 목표로, 친환경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총학생회(회장 문채원)를 비롯해 각 학과 대표 학생과 교직원 등 총 13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채원 총학생회장은 "이번 플로깅 행사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부듯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성대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교내외에서 '그린 캠퍼스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쓰레기 수거와 올바른 흡연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ESG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환경 저탄소 활동 사례를 견학하고 직접 실천하는 등 ESG 캠퍼스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플로깅은 안양문화고등학교가 주최한 '제3회 온앤오프페스타'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안양문화고와 근명고 학생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학과 고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환경보호 협력 활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엄격한 전문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갖추신 경찰경호보안과 이은영교수님을 소개합니다.

1 교수님께서 어떤 강의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경찰경호보안과 이은영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경찰경호보안과에서 형법, 범죄예방론, 경찰학개론, 범죄수사론 등 형사사법 및 경찰행정 전공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 강의에 임하실 때 어떤 자세를 가지시나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엄격한 전문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법이나 형사절차법, 범죄수사론처럼 어려운 과목일수록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고, 학문적 깊이는 결코 놓치지 않는 균형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한 저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경찰·경호·보안 분야의 특성상 책임감과 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실에서는 엄마처럼 세심하게 챙기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며, 미래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고민 유형은 무엇인가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고민은 진로 선택에 대한 깊은 불안과 갈등입니다. 특히 최근 경찰공무원 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계속 경찰을 준비해야 할지', '연봉은 높지만 민간 경비·보안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나을지'를 놓고 많은 학생들이 고민합니다. 저는 이런 진로 상담에서는 단순히 직업만을 비교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향·강점·적성·가치관을 함께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을 앞둔 시기에는 진로 외에도 개인의 일신상 문제나 가정환경, 인간관계, 자존감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교수'이면서 동시에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조언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대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무엇보다 세계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젊었을 때 꼭 경험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껴보는 경험입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과정은 자주성과 삶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는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경험들은 훗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큰 힘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과거의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더 멀리 가보고, 조금 더 넓게 보고, 세상을 직접 경험해보라'고요.

5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한 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의 불안과 조급함이 결코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흔들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 꾸준히만 가면 결국 원하는 자리에 닿는다'고요. 스펙에만 집중하기보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구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응원하는 교수도, 친구도, 가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은 결국 어디를 가든 빛이 납니다.

6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해가는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에 맞추기 위해 애쓰기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결을 믿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미 '성장판 열린 어른'입니다. 실패도 경험이고, 돌아가는 길도 결국은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면서 한 걸음씩 꾸준히 가자.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꿈꾸던 자리에 자연스럽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빛날 준비만 하고 있으면, 결국 빛날 순간은 찾아옵니다."





연성대학교 베트남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Xin chào hân hạnh được gặp bạn)”

연성대학교에 베트남반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빠르게 캠퍼스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베트남반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 수업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1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아임 학생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제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응이아 학생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전공하면서 저는 좋은 날씨, 문명이 발달한 나라를 위해 한국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팜잔느권 학생 저는 한국의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경영학 분야가 발전되어 있어서 한국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응웬 티 평 응우 학생 한국은 경영 교육이 실용적이고 변화 속도도 빨라 제 성향과 잘 맞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고 싶어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두언 쑤언 쩡 학생 제가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전공을 깊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제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경영학 분야가 발전되어 있어서 한국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전공하면서 저는 좋은 날씨, 문명이 발달한 나라를 위해 한국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경영 교육이 실용적이고 변화 속도도 빨라 제 성향과 잘 맞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고 싶어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전공을 깊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2 수업이나 전공 과정을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응이아 학생 언어의 차이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홍아임 학생 한국어를 배우거나 전공 과정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팜잔느권 학생 처음에는 한국어가 부족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응웬 티 평 응우 학생 초반에는 교수님들의 말씀이 빨리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며, 모르는 부분을 바로 질문하면서 점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언 쑤언 쩡 학생 처음에는 한국어 전문 용어가 어렵고 수업 속도가 조금 빨라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습하고 교수님께 질문하면서 많이 적응했습니다.

3 수업이나 전공 과정에서 흥미롭거나 도움이 된 부분이 있나요?

응이아 학생 저희 교수님은 잘 가르쳐주고 여러 활동 수업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홍아임 학생 수업이나 전공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조별 토론과 수업 발표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한국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팜잔느권 학생 경영학 수업에서 조별활동이 흥미로웠습니다.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응웬 티 평 응우 학생 실습과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론이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 전공에 대한 흥미도 높아졌습니다.

두언 쑤언 쩡 학생 실제 기업 사례나 팀프로젝트 수업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직접 분석하고 해결해 보면서 전공 이해가 더 좋아졌습니다.

4 향후 진로 계획이나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응이아 학생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홍아임 학생 앞으로 제 목표는 제 선택한 전공에 맞는 좋은 직업을 얻어 한국의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팜잔느권 학생 앞으로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실력을 쌓은 후 한국 기업이나 베트남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응웬 티 평 응우 학생 한국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제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소비 트렌드가 제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언 쑤언 쩡 학생 한국어 실력을 더 높이고 전공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중에는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5 학교 생활에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홍아임 학생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져서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팜잔느권 학생 한국어가 더 빠르게 늘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보충 수업이나 스터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웬 티 평 응우 학생 전공과 연결된 단기 인턴십이나 실무 체험 프로그램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수업 내용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언 쑤언 쩡 학생 한국어 보충 수업이나 전공 실습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 활동도 조금 더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성대학교 베트남반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단순한 유학 생활을 넘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문화·학업·진로 측면에서도 학업과 진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배움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연성대학교가 베트남반 학생들에게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 사진은 2025 경영학과 베트남반 현장교육 '아모레퍼시픽 견학' 활동 사진입니다. 브랜드 자산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모레퍼시픽에서 직접 방문해 보고 배우는 활동을 견학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주로 이용하는 창의교육센터 강의실 앞 통통계단에서 다같이 찍은 베트남반 단체사진입니다.

연성대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기르기 위한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2025년도 2학기 연성대학교 학생복지센터 1층 팝업 존에서는 총 10개의 학과가 팝업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과가 각자의 개성을 보여준 팝업 존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직접 기획 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성과를 뽐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2025년 10월 제3회 온오프페스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한 마켓에 이어, 게임콘텐츠과, 스킨케어과, 식품영양학과, 경영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학교 내부 팝업 존을 만들기도 하였다.

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창업동아리 DRINC가 자체 개발한 스포츠 회복음료 리커버 340(RECOVER 340)을 2025년 Gem-Festival 플리마켓(11월 20~21일)에서 처음으로 공개·판매하며 학생과 지역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동아리 학생들은 직접 개발한 제품의 성분, 영양설계, 제조과정 등을 설명하며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업형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리커버 340'은 (주)힘찬걸음에서 제조하고,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판매원으로 등록해 정식 라벨링을 갖춘 시제품 형태로 출시되었다. 그동안 실험실 단계에 머물던 학생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성과와 실무 경험 양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창업동아리의 부회장인 신정민 학생은 "사는 분들이 제품 맛과 효능을 칭찬 해주실 때 보람을 느꼈다"며, "교수님들 붙잡고 제품 소개 후 대량으로 판매했을 때가 가장 ভাল 것 같았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끝으로 "식품영양학과는 오랜 전통을 지닌 과이기에 미래 진로와 동아리 활동에 있어 조언과 지원이 많아 학교생활 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 식품영양학과의 팝업존 모습



◎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판매하는 자체 개발 스포츠 회복음료 '리커버340'



◎ 스킨케어과 팝업존



◎ 스킨케어과 레몬트리 학생들이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모습

Q1. 이번 팝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1. 학생분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해보시면서 제품 설명을 들은 후에 바로 구매하시거나 친구분들과 같이 방문하셔서 관심을 주신 부분이 가장 보람을 느꼈어요.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추천하고 설명해드릴 때 저희가 준비한 노력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Q2. 이걸 내가봐도 잘했다!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A2. 이번 팝업은 준비 과정부터 운영까지 전부 학생들이 직접 맡았다는 점이 가장 ভাল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품 선정, 부스 구성, 홍보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썼고 특히 고객 피드백 타입에 맞게 제품을 안내해드리는 '스킨케어 전공만의 전문성'을 잘 살렸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어요.

Q3. 우리 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3. 저희 스킨케어과는 실습 중심이라 실제 피부 관리실과 비슷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고 실습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팀워크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팝업 때에도 자연스럽게 협력해서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4.소감 짧게 부탁드립니다!

A4. 이번 팝업을 통해 저희가 배운 걸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레몬트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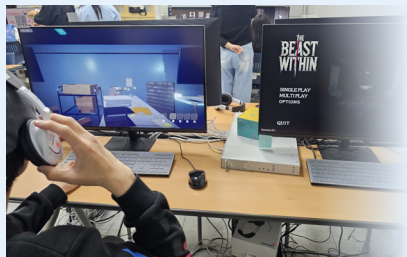
스킨케어과

게임콘텐츠과

경영학과



◎ 게임콘텐츠과 팝업존



◎ 게임콘텐츠과 학생들이 제작한 게임을 즐기는 학생

Q1. 팝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1. 처음 보는 학생들이 우리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고 자연스럽게 웃거나 놀라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다"라는 한마디가 모든 준비 과정을 보상해주는 느낌이었어요.

Q2. 이걸 내가봐도 잘했다!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A2. 방문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는지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고 필요한 설명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며 분위기를 이끌어준 점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처음 온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했고 체험 만족도도 높았던 것 같아요.

Q3. 우리 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3. 게임콘텐츠과는 기획, 프로그래밍, 아트가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주고받고 실제 게임으로 빠르게 구현해내는 실행력이 뛰어나 항상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Q4. 소감 짧게 부탁드립니다!

A4. 이번 팝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과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성대학교 경영학과 창업동아리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오염된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로 리사이클링 제품들을 제작하여 (11월24일-11월25일)판매했다. 위 제품들은 각각 양말목, 일회용 컵홀더, 비닐 포장지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전부 "ESG제품"이었다.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착안하며 어떻게 상품화 할지 결정하는 등 참여 학생들의 교과 외 전공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다. 경영학과 창업동아리 1학년 이태인 학생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흥미를 느꼈다"며 "이처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 경영학과 학생들의 판매 상품인 친환경 에코백



◎ 경영학과 창업동아리 이승민 교수님과 팝업 전시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달려있는 다양한 모습의 에코백



◎ 프로틴 단백질 바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



배움을 향한 꾸준한 걸음 경험에 대한 여정을 이어나가다 시니어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연성대학교에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는 시니어 선생님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사회적·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다시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시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배움에 대한 동기,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향한 조언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1. 사회복지경영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 또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김혜성 선생님 ▶ 늦은 나이에 항상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계기로 공부할 기회가 찾아와서 때맞추어 사회복지 경영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최란옥 선생님 ▶ 저는 자영업을 오랫동안 경영한 경험에서 꼭 배워야 될 학문이라고 생각했고, 저의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윤도순 선생님 ▶ 시니어 학생으로서 도전하는 편입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배움을 통해 인생에서 더 다양한 역할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홍순자 선생님 ▶ 일과 가족 환자 돌봄을 병행하며 살아오면서, 앞으로의 삶을 더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경영 전공을 공부하다 보니 경영 전반의 흐름을 이해해야겠다는 필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 선택이 오늘의 저를 경영학과 전공심화 수업으로 이끌었습니다.

2. 학교를 다니시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수업 또는 활동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혜성 선생님 ▶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수업 때마다 새롭고, 세상을 알아나가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최란옥 선생님 ▶ 모든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컴퓨터 수업이 가장 난관이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학원에 등록했지만 학원 선생님들도 모른다고 해서 교수님께 배우고 학원 선생님께 알려드려 다시 배우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원과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의 차이점은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도순 선생님 ▶ 새로운 학습에 즐거움이 컸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에서 도전과 성취를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경영과 연계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홍순자 선생님 ▶ 마케팅수업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이론이 삶과 맞닿아 있어, 배우는 만큼 세상을 읽는 눈이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제를 할 때도 제 경험이 자연스럽게 재료가 되어 공부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3. 시니어 학생으로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극복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혜성 선생님 ▶ 컴퓨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 잘못 눌러지면 다른 것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란옥 선생님 ▶ 첫 수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리는 어디에 앉을까 부터 간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엇이든지 학생들이 먼저이고 저는 그 뒤에 있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윤도순 선생님 ▶ 이전 학업과 사회경험에서 쌓은 강점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니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과 체력 문제에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인 학습,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오히려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홍순자 선생님 ▶ 새벽 근무, 가족 돌봄, 수업 이것들을 하루 안에 겹쳐 버티기 쉽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했습니다.

4. 시니어로서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김혜성 선생님 ▶ 늦은 나이에 컴퓨터부분이 많이 어려운데, 잘 이해해주시고 여러번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최란옥 선생님 ▶ 오랜 사회생활에서의 꾸준함, 책임감, 배움의 소중함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수업내용을 기억을 잘 못해도 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다르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학생들과의 수업이 저에게는 아주 큰 배움입니다.

윤도순 선생님 ▶ 다양한 삶에 경험, 책임감과 꾸준함으로 배움의 목적이 있기에 과제, 출석, 학습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자 선생님 ▶ 경험이 많다 보니 배움의 우선순위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수적인지 분별하는 힘, 그리고 급하지 않게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시니어 학습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 어린 학생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혜성 선생님 ▶ 옛날 어른신께서 공부는 때가 있다 하듯이 저도 공부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조금 더 열심히 학창 시절 보냈으면 해요.

최란옥 선생님 ▶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습니다. 폭넓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보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머나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나와 다른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윤도순 선생님 ▶ 배움에는 속도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는 작은 것부터 꾸준히 도전해 보고 건강을 지키면서 휴식과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시간표가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충분히 좋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며 선행, 교수님, 동기들과의 인연은 앞으로 사회에서의 큰 자산이 됩니다.

홍순자 선생님 ▶ 너무 서둘러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부터 움직여보길 바랍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연성대학교의 AI 맞춤 취업 프로그램,

AI 마스터 클래스

연성대학교가 개최한 'AI 마스터 클래스'는 AI 시대에 맞춘 취업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AI 리터러시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된 특강입니다. 9월 17일부터 이틀간 학생복지센터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교내 캠프로 진행되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전 취업준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AI 마스터 클래스' 캠프에 직접 참여하고 느낀 익명의 학생에게 전달받은 후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Q1. 자기소개와 AI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A1.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학년 000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 챗GPT를 자주 사용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AI 마스터 클래스' 특강이 열렸고, 저의 평소 고민이던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2. 'AI 마스터 클래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

A2. 첫째 날에는 6시간 동안 '청년취업 성공 핵심전략', '생성형 AI 활용 취업준비 효율 향상법'을 주제로 사전 특강이 열렸습니다. 저와 참가 학생들은 AI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대비 활용 팁 등 최신 취업 트렌드를 배우며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AI 마스터 클래스는 연성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누구나 제약없이 신청이 가능해서, 실제로도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청년 분들도 참가하셨습니다.

둘째 날 또한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생성형 AI 모델별 특징과 활용 ▲AI 기반 채용공고 분석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나만의 입사지원서' 완성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후에는 팀별 AI 활용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우수 팀에 상품권이 수여되었으며, ChatGPT로 작성한 개인별 이력서를 심사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상품권을 수여했습니다. 참여만 해도 상품권을 수여해주기 때문에, 저는 우수작과 우수팀 둘 다 수상되어 총 세 개의 상품권과 수료증을 받게되었습니다.

Q3. AI 마스터 클래스를 수강한 뒤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3. 저는 이번 프로그램이 "AI 시대에 필요한 취업준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습형 과정이 많아 취업 준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AI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한 토대가 된 것 같아 정말 만족하는 특강이었습니다. 내년에도 특강이 열린다고 하니, 재학생 분들은 꼭 한 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별 이력서를 심사하여 선발된
실습우수자 수상 모습



AI 마스터 클래스가 끝나고
참가자들과 찍은 단체 사진

연성대학교, 2025 GEM-FESTIVAL로 그동안 쌓아온 창의·실무 역량 한자리에서 확인

연성대학교가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2025 Gem-Festival'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성과를 학생·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생들의 도전적 아이디어를 실증하는 축제로 마련됐다.

올해 축제는 21일 오후 연곡문화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컨벤션홀에서는 학과별 졸업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실습 결과물이 공개됐다. 학생들은 전공을 기반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며, 학업 과정에서 쌓은 실무 능력과 창작 역량을 선보였다.

또한, K-pop 학과에서는 다가오는 3월 음원사이트에 음원을 발매한다고 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학생식당 앞에 있는 캡스톤디자인 작품존 또한 많은 발걸음을 모았다. 해당 부스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주제로 한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관람객들은 학생들이 고민한 접근 방식과 결과물을 살펴보고 실제 직무와 연결된 학습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학생복지센터 로비는 창업 동아리 활동으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카페·베이커리와, 호텔관광과, 경영학과 등 여러 학과의 창업 동아리들이 자체 개발한 제품을 선보이며 방문객과 소통했다. 커피와 음료, 디저트, 제과류, ESG 개념을 접목한 제품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준비됐다. 학생들은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판매 방식과 고객 응대 등 실질적인 창업 경험을 쌓았다.

이번 2025 Gem-Festival은 전공 기반 역량을 실습하고 공유하는 장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확장해 보는 기회로 자리매김했다. 연성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교육·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막이 물이 새자 학생들이 직접 지탱하며 부스를 운영해 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축제 부스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환하게 웃는 운영진의 모습

2025 연성대학교 양지대동제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드러낸다.

연성대학교 대표 행사인 ‘양지대동제’가 2025년에도 개최되며,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양지대동제는 학생동아리 페스티벌, 체험형 부스, 교내 기관 참여 프로그램 등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역사회 연계 부스나 마켓 형태의 참여도 시도되며, 축제가 단순 오락이 아닌 상호작용 중심 행사로 변화했다.

운영 방식: 안전관리와 티켓 배포의 개선

2024년 축제는 인원 밀집과 동선 관리에서 불편함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2025년에는 사전예약제 도입, 구역별 동선 분리, 안전요원 확충 등 운영 안전강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연장 내 혼잡 완화와 무대 주변 안전점검이 체계화되면서 학생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생 반응: 능동적 참여로 2025년 양지대동제에서는 ‘내가 축제를 만든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동아리, 학과, 소규모 팀 단위 참여율이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학생자치 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연성대학교 축제는 단순히 즐기는 행사를 넘어 학생 중심·참여 중심의 축제로 점차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양지대동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미지수지만, 두 해의 차이는 분명한 하나의 흐름을 보여준다. 즉, 연성대학교 양지대동제는 학생자치, 안전,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우들이 함께 부스에서 친목을 다지는 모습



양지대동제 첫날, 학생들이 무대 앞을 가득 메웠다.



가수 그레이와 우원재의 활기 넘치는 공연 모습



늦은 밤, 운동장을 밝히는 조명 아래에서 자유롭게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는 모습

연성대학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학생들의 하루를 응원해주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연성대학교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정문과 학생식당, 서로 다른 공간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작은 움직임과 따뜻한 시선이 모여 학교의 하루가 비로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아침을 여는 사람, 경비 조병철 기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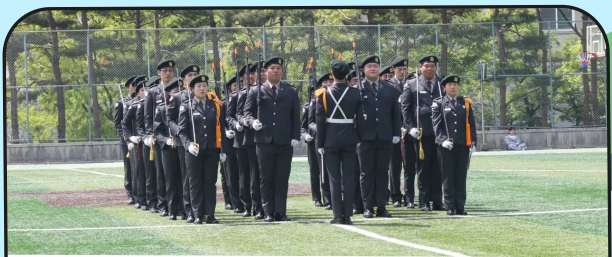


오전 7시, 정문 근처 경비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습니다. 고정 주간조를 맡고 있는 조병철 기사님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의 하루는 6시 30분경 근무지에 도착해 전날 야간조와 인계를 나누는 일로 시작됩니다. "학생들이나 직원들을 맞이할 때 밝게 인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시간에는 안전도 신경 써야 하고요. 학교 방침으로 택시 단속, 문의 안내, 대표전화 응대까지 업무가 다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비실 안에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 그는 일부러라도 자주 밖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학생들과 직접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는 일이 하루의 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학생들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던 어느 날, 향공서비스와 학생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준 일, 제빵 전공 학생들이 빵을 가져다준 일, 한 할머니가 감을 주고 간 일 등으로 소소한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때문인지 그는 연성대 학생들을 "따뜻한 친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치지 말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각자의 꿈에 대한 열정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점심을 책임지는 사람, 학생식당 조리사



점심시간의 혼잡함 뒤에서도 또 다른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조리사 A씨는 학생들이 식당을 찾기 훨씬 전부터 하루를 준비합니다. 식재료 손질, 조리 세팅, 조리대 배치까지 오전 시간은 이미 바쁘게 흘러갑니다. "메인 조리사님들은 거의 새벽에 출근하셔서 식재료 준비를 하십니다. 메뉴는 영양사 선생님이 구성하는데 학생들이 칠판에 남겨주는 의견을 많이 참고합니다. 저희는 그다음 주 식단을 보통 목요일 오후쯤에 알게 됩니다." 11시가 가까워지면 학생식당은 본격적으로 분주해집니다. 주문 벨이 울리고,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퇴근하고도 벨소리가 귀에 남을 만큼 학생들의 반응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지만 그만큼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학생들을 "내 아이 밥 차리는 마음"으로 대한다고 말합니다. 식판을 받아 가며 건네는 학생들의 "잘 먹겠습니다."라는 짧은 인사, "오늘 이 메뉴가 맛있었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들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 이야기를 묻자 그는 지난주에 보았던 한 남학생을 떠올립니다. "후레이크를 더 줄 수 있느냐고 용기 내서 말하더라고요. 그런 부탁은 저희가 흔쾌히 드립니다. 필요한 거나 메뉴에 관한 피드백은 저희의 원동력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학생이 몰리는 점심시간은 긴장이 가장 높은 순간입니다. "피크 타임이 되면 음식을 빨리 제공해야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도 서로 도와가며 움직이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원하는 메뉴가 있으면 칠판에 많이 적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식재료는 미리 사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신선한 것으로 주문합니다. 학생식당이 가격이 저렴한 편임에도 건강한 재료로 신경 씁니다. 학생들이 많이 먹고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하루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누군가의 인사로 시작되는 아침,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로 이어지는 점심. 연성대학교의 하루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 완성됩니다. 경비실과 학생식당에서 하루를 지키고 있는 이들의 손길이 모여, 연성대학교는 매일 변함없이 따뜻하고 든든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정돈된 대열로 선 군사학과 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통일된 경례 동작은 학과의 규율과 체계적여보인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보기 드문 절도와 조직력은 실전 중심 전공의 신뢰도를 높이는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대학 축제 현장에서 권은비가 학생들의 촬영 요청에 직접 응하며 사진을 찍어주는 장면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건네받아 한 명 한 명 프레임 맞춰 촬영하며 웃어 보이는 모습은, 연예인과 학생 사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문 소통이 인상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올해의 연성대학교에서의 최고의 순간 사진 공모전

올해의 순간 사진 공모전은 2025년 캠퍼스를 빛낸 감정과 연결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기사는 대학 신문방송국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콘텐츠 중, 학생들의 참여와 공감도가 가장 높았던 장면을 기반으로 선정·분석하였습니다. SNS 속 기록은 단순 사진을 넘어 캠퍼스의 추억과 문화를 증명하고 살아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올해의 추억들을 담아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동아리 공연이 강렬한 조명, 대형 스크린 비주얼과 한 장면으로 어우러진 순간입니다. 학생 주도 문화 콘텐츠가 학교 축제의 감성의 최고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타리 앞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높이 들고 현장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 관람이 아닌, 순간의 공기와 감정을 직접 저장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퍼스 문화의 확산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반응과 밀집된 인원은 올해 축제의 열기를 증명하는 대표적 기록으로 남았습니다.